트렌드 따라잡기 >> 제2의 인생 여는 시니어들

# “노래·모델·광고는 내 인생”…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 전국 노래자랑 스타 지병수
## 춤과 노래로 ‘할담비’ 신드롬
## 국내 1호 시니어모델 김칠두
## 서울 패션위크 런웨이 장식
## 73세 ‘뷰티 유튜버’ 박막례
## 112만 구독자 확보 광고계 진출

## 대학교수·공직자 정년퇴임
## 기세관·임동윤·유창종씨
## 시니어 성악가 변신
## 콘서트 열고 위문공연

## 의상 디자이너 김재곤씨
## 기능경기대회 도전 메달 따기도

국내에서 최근 ‘핫’(Hot) 한 인물 중 한 명은 예사롭지 않은 춤과 노래로 ‘할담비’ 신드롬을 일으킨 지병수(77) 할아버지다. 지 할아버지는 최근 KBS 1TV ‘전국노래자랑’ 서울시 종로구 편에서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자신만의 색깔로 불러 폭발적인 화제가 됐다.

‘내가 미이춰어써~ 떠떠떠떠떠나 버버버버버려~’ 원곡이 지닌 리듬과 선율을 모두 어겼지만 지 할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무대에 누리꾼들은 ‘리듬을 가지고 노는 편곡’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는 연일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주목을 받다가 손담비와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사회복지관 자원봉사를 하던 지 할아버지는 기세를 몰아 유튜버로 변신했다. 18년 넘게 전통무용을 한 지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노래를 좋아했다”며 홍진영, 카라, 티아라, 채연의 팬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영상에서 “(몸을) 흔드는 젊은 노래를 좋아한다. 또 흑인 노래도 좋아한다”며 “전국적으로 경제도 침침한데 이런 노래로 웃겼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할담비’ 신드롬에 빠진 누리꾼들은 “유쾌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흥이 난다”며 응원을 보냈다.

2018~2019년 연달아 서울패션위크 런웨이를 장식한 ‘국내 1호 시니어 모델’ 김칠두(65)씨와 112만 구독자를 등에 업고 상업 광고계까지 진출한 73세 ‘뷰티 유튜버’ 박막례씨 등 어르신들의 유쾌한 도전에 전국이 열광하고 있다. 연륜의 미학을 뽐내는 이들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음악은 내 인생’ 시니어 성악가들=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수적이다. 연륜의 미학이자 행복의 무대를 선보이는 ‘시니어 음악가’ 3인을 만났다.

지난 3월28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대에는 나비 넥타이에 턱시도를 갖춘 초로(初老)의 연주자들이 나섰다.

유·스퀘어 문화관이 올해 4번째 열고 있는 ‘금호시니어콘서트’ 참가자들이었다. 출연진은 모두 만 40세 이상의 아마추어 연주자와 현직에서 은퇴한 연주자 등 총 10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치과의사, 정년 퇴임한 교수, 금융업계 종사자, 음악학과 동문 등 저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

시니어콘서트의 성악부문 첫 무대는 4년 전 순천대 교수를 정년퇴임한 기세관(70)씨가 장식했다. 그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국어학자이다. 지난 1984년 순천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임강사로 부임해 2015년 같은 대학 교수로 퇴임하기까지 30여 년 동안 우리말을 가르쳐 왔다. ‘국어음운론 연구’(2018), ‘광양 방언 사전’(2015) 등 여러 책을 펴내고 30여 편에 이르는 논문을 쓰면서 우리말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려는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가곡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노래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년이 됐던 지난 2010년에는 순천대에서 ‘국어학자 기세관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가곡 여행’ 연주회를 열어 ‘청산에 살리라’ ‘옛날은 가고 없어도’ 등 주옥 같은 우리 노래를 선보였다. 당시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음맹’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독창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77세 지병수 할아버지는 지난 3월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자신만의 색깔로 불러 시청자들의 찬사와 응원을 받았다.

‘국내 1호 시니어 모델’ 김칠두(65)씨. /연합뉴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한 기세관·유창종·임동윤(왼쪽부터)씨는 이제 ‘테너’, ‘바리톤’의 이름을 달고 인생 2막을 연주하고 있다.

“평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꾸준히 음악활동을 해왔어요. 독창회 3회 등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무대에 서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 제가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 무대를 기회삼아 더욱 많은 활동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리톤 임동윤(68)씨는 가곡 ‘그리운 사람아’와 토스티의 ‘기도’를 부르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조선대 의대 교수를 정년퇴임했다. 심혈관계 약리학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임씨는 초당약사대상, 대한약학회 학술상, 대한고혈압학회 학술연구상 등을 받았다.

임씨와 기씨는 우리 가곡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달 연주회를 여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회원들은 10년 동안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히 위문 공연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어릴 적부터 형제끼리 모여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임씨는 학자답게 학구열을 불태웠다. 3년 전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 아카데미아 뮤지칼레 ‘G. 도니제티’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단기과정을 수료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대표 아리아 ‘오묘한 조화’를 호소력 있게 소화한 테너 유창종(66)씨는 1981년부터 전남도와 중앙부처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지난 2009년에는 자신의 회고록 ‘대나무처럼 살고 싶었다’를 펴내며 30여 년 공직생활을 돌아보기도 했다. 순천부시장,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그는 공직생활을 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

“청년시절 산에서 공부할 때 한국 가곡을 혼자 배우며 모르는 가곡이 없을 정도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3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한 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3년 동안 성가 발성과 합창 과정을 공부하며 성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칸타빌레,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광주남구합창단, 담양 성당 성가대 등에서 연주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행복을 재단하는 71세 디자이너= 최근 막을 내린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직종 시상식에서는 70대 남성이 동메달을 걸고 시상대에 올랐다. 의상 디자이너 김재곤(71·서구 내방동)씨가 그 주인공. 김씨는 20~40대로 구성된 참가들 중 유일한 70대였다. 그는 대회에서 옷 잘입는 ‘패피’들만 입는다는 여성용 ‘나폴레옹 자켓’을 완벽히 만들어내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씨는 현재 남구 서동에 있는 의상제조업체 ‘유니프라자’에서 2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틈틈이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며 2010년과 2017년 광주시 대회 은상·동상을 수상했다. 신사복·여성복 등 고객이 원하는 옷이라면 척척 만들어내는 김씨가 의상디자인에 발을 들인 계기는 순전히 생계 때문이었다.

화순에서 나고 자란 김씨는 열일곱 되던 해에 서울 충무로의 양장점 ‘유일라사’에서 7년 동안 일하며 재단을 배웠다. 1974년부터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과 금남로에 양장점 ‘신진라사’를 운영하며 터를 잡았다. 30년 넘게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그의 가게는 번창해 15명의 직원을 두기도 했다.

“살기 팍팍했던 시절 양복 재단을 배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정을 꾸리면 아내와 함께 바느질이라도 할 생각으로 이 업계에 발을 담갔죠. 자녀 4명이 장성할 때까지 옷을 만들다 보니 천직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먹고 살려고 했던 재단일에 점차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씨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일하느라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그는 독학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배움의 한을 풀었다. 1982년에는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자과정을 수료했고 2012년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60대부터 ‘양복 기능사’ ‘양장 기능사’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직업훈련교사 의상디자인 3급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해온 김씨는 앞으로도 의상디자인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無 착색료 ★ 감미료 ★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